

◎石窟庵의 調査

今夏七月부터 九月에 걸쳐서 實施될 學術調査는 工事를 위한 基本的인 諸問題의 解決을 期하는 것인 바 七月에는 다음과 같다.

· 서울대 李敏載 孫致武 鄭英昊 三教授 七月五日-九日(地下水 및 窟內의 藻類와 溫濕問題)

· 서울대 李敏載(植物) 孫致武(地質) 鄭英昊(植物) 金聖三(氣象) 李泰寧 教授(物理) 國立中央工研의 成佐慶 盧益三의 兩氏(石佛風化) 金正基(建築)氏는 七月二十七일부터 三十一일까지 現場에서 各部門에 걸쳐 細密한 調査와 綜合討論을 하였다. 이에는 文應國文化財管理局長과 黃壽永 柳海宗 兩監督官도 參加하였다. 諸般問題의 調査檢討는 앞으로 續行키로 하였고 窟內 溫濕度의 計量을 위하여 計器를 緊急設置키로 하였다.

◎國立博物館의 堤川 支石墓 發掘

堤川郡 淸風面 黃石리에 있는 支石墓 六基에 對한 發掘이 七月六일부터 十三일까지 金正基 李蘭暎 金東賢 三人의 參加로 施行되었다.

◎瑞山 普願寺 法印國師塔의 臺石 調査

扶博 朴日薰氏는 六月上旬 同塔 實測을 위하여 埋沒되었던 基壇部를 發掘하였던 바 八角地臺(徑一七二cm 高四〇cm)에는 各面一軀의 獅子를 下臺(徑一一五cm 高四〇.五cm)에는 雲龍文이 彫려 있었다는 바 매우 優秀한 彫刻이었다고 傳한다.

◎文化財委 第一分委(六次)

七月十二日 金庠基 金斗鍾 李弘植 黃壽永 委員出席, 審議案件 如左.

- 一、金庠基委員長으로부터 南大門石築工事に 對한 慎重檢討 要望
- 一、既指定件 중에서 國寶候補選定(四〇點)

- 一、安東 陶山書院尙德祠土掘補修 可決.
- 一、實相寺藥師殿 秀澈和尙碑 石燈補修 委員調査와 經費檢討後 施工.
- 一、金山寺彌勒殿補修(翻瓦 및 木部) 可決.
- 一、雙峰寺大雄殿二層以上 解體工事的 經費檢討.
- 一、最高會議 鄭世雄委員의 慶南 西部一帶視察에 따르는 指示事項(六項) 討議.
- 一、서울 東廟境內附帶建物撤去를 調査키 위하여 會議終了後 現場視察하고 市案을 承認키로 한.

◎文化財委 第一分委(七次) 七月十九日開催

- 一、서울 城廓補修工事承認 可決.
 - 一、舊皇室財産中 永久保存財産策定(陵園墓) 可決.
 - 一、東大門丹青, 可決.
 - 一、晉州城一部指定解體 可決.
 - 一、宗廟內 世宗紀念館建築 否決.
 - 一、慶北大發掘許可申請 可決.
- 出席委員: 金庠基 金載元 金斗鍾 李弘植

◎慶州·忠北의 古蹟 調査

幹事 鄭永鎬氏는 師大金光洙君과 같이 八月二日-七日, 다음 地域을 調査하였다. 榮州郡(布教堂內石物·可與里三尊佛) 奉化郡(西洞里三層石塔·春陽驛前石佛立像·物野面 北支三里 磨崖坐像 및 光背) 槐山郡(彌勒里塔像과 同石壁遺構) 堤川郡(寒木面 獅子頻迅寺塔·德周寺址와 磨崖佛) 中原郡(中央塔) 忠州市內 鐵佛坐像.

南大門 通信 (三)

申 榮 勳

南面石築은 上段二列 以外에는 築石이 完了되었고 北面石築도 相當히 진척되고 있다. 南面의 二段을 未築한 理由는 北面이 같은 位置의 壁石이 올라 왔을 때 礎石을 一定하게 定置한 후 定礎된 礎石을 補強하기 위한이다.

石築解體時 出土된 遺物은 如下하다.

(1) 李朝白磁破片는 多數..後期白磁로 推定되는 蓋의 破片 등이 二,三處에서 發見되었다.

(2) 粉靑砂器破片..麗末鮮初 期間 中 製作되었다는 여기서 出土된 것들은 大概 鮮初의 作品이라고 推定된다.

(3) 土器破片..胎質이 堅緻한 土器破片이 發見되었다. 대략 攝氏一,二〇〇度 程度에서 燒成되었으리라 推定되는데 胎色은 淡褐色이다. 高麗時代의 土器로 보여진다.

(4) 白磁青花器破片 一片..器形은 鉢이라고 推定된다. 青花材는 古靑으로 보인다. 胎質은 硃石質이 成分인 듯하다.

(5) 莫斯瓦破片..夫·女瓦의 文樣片이 出土되었다. 全貌를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文樣의 一部分만을 보이고 있다. 此破片群中에서 復元時 使用될 文樣의 標本이 決定되기로 하였다.

(6) 皮製주머니 一點..杏葉形의 皮製주머니 一點이 出土되었다. 裏表는 脫落하고 前片만이 남아 있다. 담배삼지가 아니었을까 生覺된다.

(7) 담배대 竹竿 一點..金屬附屬品이 去頭截尾된 竹製대만이 出土되었는데 대의 上下孔의 狀態로 미루어 담배대일것이 分明하다.

(8) 부시 一點..鑄造한 素文의 簡古한 부시 一點이 出土하였다.

(9) 網巾破損品 一點..原形을 찾을 수 없이 破損된 網巾 一點이 出土되었는데 竹製細針이 數片 달려 있다.

(10) 빗..상투틀고 網巾쓰고 귀머리 올리는 等に 使用되었으리라 생각되는 小形 빗(갈자)이 完全한 形態로 一點發見되었고 半破한 銀래빗이 나왔다.

(11) 其他品..소발톱, 骨片, 砲彈破片, 皮印목 等の 出土가 있었다.

年代推定과 出土作況과 位置는 後에 報告書에 詳記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그 種類만을 列記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大英博物館의 李朝佛幀

崔 淳 雨

倫敦 大英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는 李朝時代의 天王像 두幅을 紹介해

두고자 한다.

두폭 모두 高가 九

尺 幅이 六尺五寸이

나 되는 絹本濃彩의

大幅幀畫로서 하나

는 南方護世增長天

王像 하나는 北方護

世多聞天王像이다.

南方護世增長天王

像에는 畫面下端部

線廊內에

嘉……「奉安于……」

寺緣化秩」證師印慧」

山中大德秩」度慶」

旨觀」持殿斗性」

彩根」誦呪 奉允(外四人)」

畫師持消(外九人)」

時僧統 有弘」萬

伯(外三人)」이 外에도

都監、別座、化主、記事、

鐘頭、供養等等 多數人의

名單이 列記되어

있다.

北方護世多聞天王像에도

亦是 畫面下端部線廊內에는

本寺……」三月……寺」

本寺……」沈彥」戎永」

覺性」彩彥(外四十四人

名單)이라는 銘記가 있어서

注意를 끌고 있는데 以上

두폭의 銘記에 點線으로

